



▶ 김창수 중령 (45세) 약력소개

- 79년 육사 35기 졸업, 공병장교로 임관
- 83년 수도방위사령관 공병대장
- 87년 3군 본부시령실 시설대장
- 92년 2사단 공병대대장
- 95년 2사단 군수참모
- 97년 8월 육사 시설대장
- 99년 12월 육군본부 공병2감실 행정실장 보직

육사 시설대장 김창수 중령

ESCO사업 軍 확대에 기폭제 역할

지난달 9일에는 교내에서 ESCO 2차사업 추진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2차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냉난방 설비시설 가동을 위한 34명의 기기가동요원이 12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벗어나게 된다. 또 노후된 전기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연평균 4내지 5억여원이 고정투자되던 시설보수비가 절감되어 다른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취재 ■ 김인숙 기자

노후 냉난방설비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

육군사관학교가 ESCO사업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부터 학교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냉난방시설을 통합하여 최첨단 자동제어 원격감지 시스템의 통합보일러실을 신축하는 ESCO 2차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조명관련설비를 대상으로 한 ESCO 1차사업에 이어 2차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기존의 산재된 31개소의 보일러실 및 기계실을 2개소의 통합보일러실로 신축하고 노후배관 및 헨코일 교체, 냉방시설 신설, 비상발전기 설치 등에 총 132억 7천 만원이 투입되는 전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달 9일에는 교내에서 ESCO 2차사업 추진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오남영 학교장을 비롯해 ESCO사업투자업체인 EPS코리아의 오자현 사장,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ESCO사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군(軍)에서의 에너지절약사업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차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냉난방 설비시설 가동을 위한 34명의 기기가동요원이 12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벗어나게 된다. 또 노후된 전기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연평균 4내지 5억여원이 고정투자되던 시설보수비가 절감되어 다른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연평균 11억7천만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고 시설관리 유지비용도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11년 후에는 총에너지절감금액이 투자비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SCO사업은 국가적차원의 '제테크'

육군사관학교 ESCO사업추진의 실무담당자는 시설대장 김창수 중령.

그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정책사업에 참여한다는 생각과 에너지절약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 ESCO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ESCO사업참여가 부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육사가 시범기관중의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IMF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알고보니 ESCO사업은 국가차원의 훌륭한 '제테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여건이 좋을 때라도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인데, 지금같은 IMF시기에 별도의 국방비 소요 없이 시설교체를 할 수 있고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고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김창수 시설대장은 강조했다.

조명교체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조명·전기분야의 1차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졸업 18년만에 육사 시설대장을 보직받았을 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학교의 모습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110V전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달라진 게 없었고, 승압이 안된 상태라 기계를 새로 도입할 때마다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모범 ESCO 현장을 가다 ● 육군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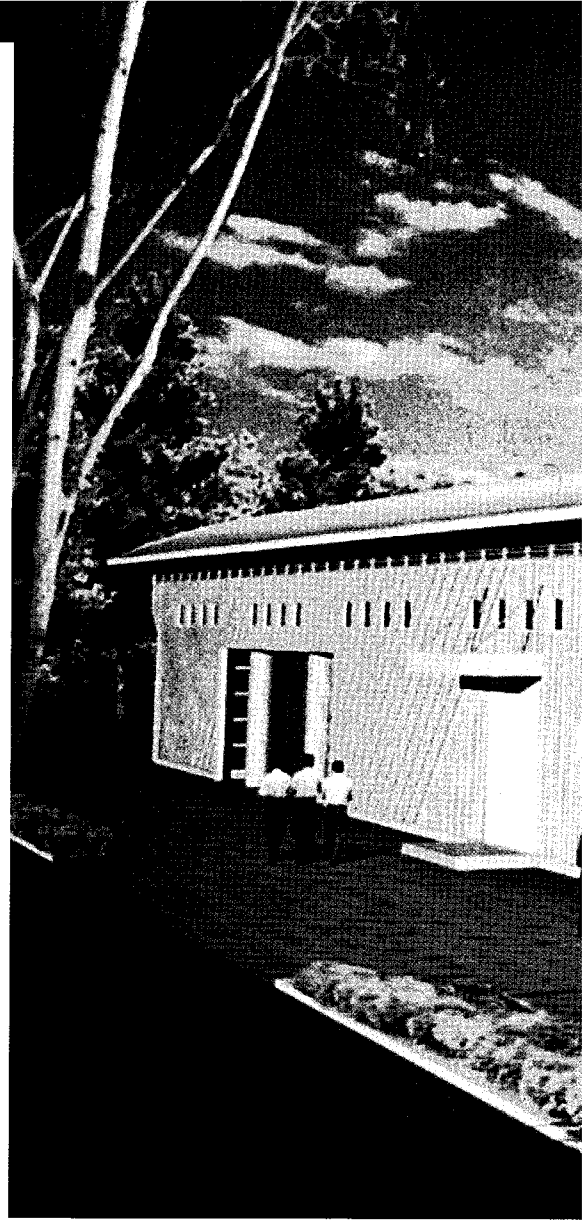
국방부는 육사의 1차 ESCO사업 성공사례집을 출간해 전 군에 배포함으로써 군에서의 ESCO사업을 적극 유도해 가고 있다. 이미 1차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육사에는 다른 기관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냉난방분야의 2차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설비분야에도 하나의 모델이 되어 집중 투자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 역시 노후된 상태여서 생도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조명교체후 전력사용량은 종전에 비해 43%가 절감되었다. 조도는 2.2배가 밝아져 생도들의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학습효과가 높아짐은 물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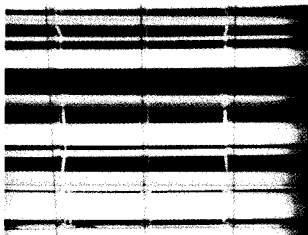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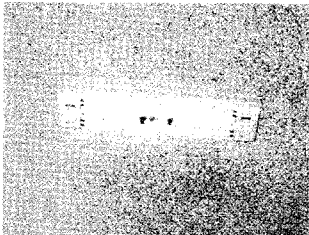
ESCO사업 덕분에 김창수 시설대장이 재임한 28개월은 종전의 20여년 동안의 시설 발전속도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능가하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2차 ESCO사업은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사업초기단계에는 고충도 따랐다.

육사시설대 인원들은 ESCO 관련책을 스무번 이상 탐독할 정도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은 ESCO에 관한 한 거의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쌓았을 정도다. 기존의 사례가 없다보니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했고, 경쟁업체들간에 치열한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성있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발된 (주)EPS코리아가 시공을 맡게 됐고, 육사의 보완된 종합평가절차는 향후 비슷한 규모의 ESCO사업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제시도 있었다.



생도회관내에 고효율조명기기가 설치된 모습. 조명기기교체(좌)에 비해 교체후(우)의 조도는 약 2.2배가 밝아져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



ESCO사업 전 군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

육사의 ESCO사업추진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에너지절감사업이 전 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육군본부에는 별도의 ESCO사업단을 편성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특전사, 계룡대 지역, 자운대 지역 등 대단위 시설지역을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대구지역 군부대의 ESCO사업 입찰공고가 발표되기도 해 벌써 그 확대 조짐을 짐작케 한다.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ESCO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국방 예산의 상당부분을 출연해야 거두어지는 효과를 별도의 국방비없이도 볼 수 있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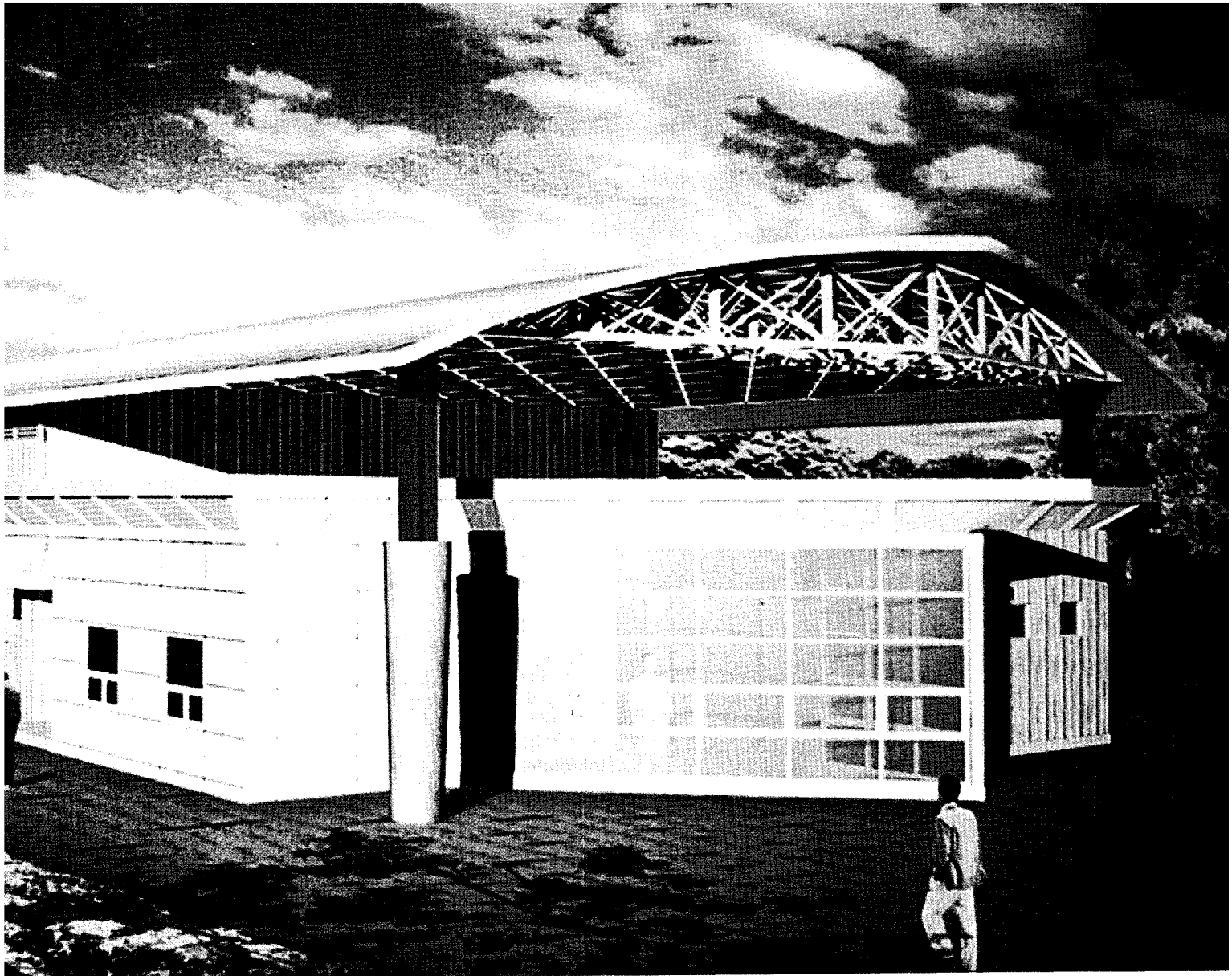


육사 ESCO 2차 사업 기공식



▲육사는 지난달 9일 ESCO2차사업을 위한 기공식을 교내에서 가졌다. 2차 사업은 총 132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전례없는 대공사이다.





▲ 최첨단 자동제어 원격감지 시스템이 설치될 통합보일러실 조감도. 공기시간은 내년8월말까지다.

국민 세금을 줄여주고 군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설투자 등의 간접전투력에 드는 비용을 직접 전투력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군분야로의 ESCO사업 활성화 가능성을 받게 해준다.

국방부는 육사의 1차 ESCO사업 성공사례집을 출간해 전 군에 배포함으로써 군에서의 ESCO사업을 적극 유도해 가고 있다. 이미 1차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육사에는 다른 기관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냉난방분야의 2차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설비분야에도 하나의 모델이 되어 집중투자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SCO와의 새로운 인연

김창수 시설대장의 육사 시설대장으로서의 임기는 지

난달로 끝이 났지만 그는 ESCO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를 에너지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달 19일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 대표기관으로서 ESCO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을 뿐 아니라 전 군으로의 확대에 길을 열어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군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만 성실히 하는 한정된 역할에서 더 나아가 건전한 국가정책을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ESCO사업에 대한 주위의 기대와 관심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지만 앞으로 군 분야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사의 ESCO사업을 계기로 향후 군부대로의 사업 확대, 그리고 100억대를 상회하는 대규모사업이 보편화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다.